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아틀란타 연준 총재, "관세 지속 가능성으로 올해 금리 인하 한 차례"

[미국 금융]

- Bloomberg: 금에 미 관세 적용으로 금 시장 혼란
- Bloomberg: JP모건, "국채 수익률 곡선 가팔라질 수 있어"

[물류]

- WSJ: 해운사 Maersk, "북미 외 견조한 수요로 실적 상향 조정"

[무역전쟁]

- NYT: 일본, "미국이 관세 합의 실수 바로잡기로 했다"...15% 관세
- Bloomberg: 중국,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오일 구매 입장

[주택]

- YahooFinance: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치 근접...고용 지표 약세로

[오일]

- Bloomberg: 유가 안정세 회복...트레이더들, 트럼프의 러시아 대응에 주목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K팝, 강한 실적 발표 후 중국 시장으로 성장 가속화 기대
- Bloomberg: 웨디스, 매출 전망 하향 조정...미 소비자 지출 감소에
- CNBC: 기업들, 사무실 출근 늘어난다...5년 만에 최고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Bostic Sees One Cut in 2025 as Tariff Effects May Persist

아틀란타 연준 총재, "관세 지속 가능성으로 올해 금리 인하 한 차례"

- 아틀란타 연준 총재인 Raphael Bostic는 올해 금리가 한 차례 인하로 그칠 것으로 여전히 내다보고 있다.
- 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가 단기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 그는 관세가 계속 시행되면 관세와 고물가 전망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인플레이 기대가 올라가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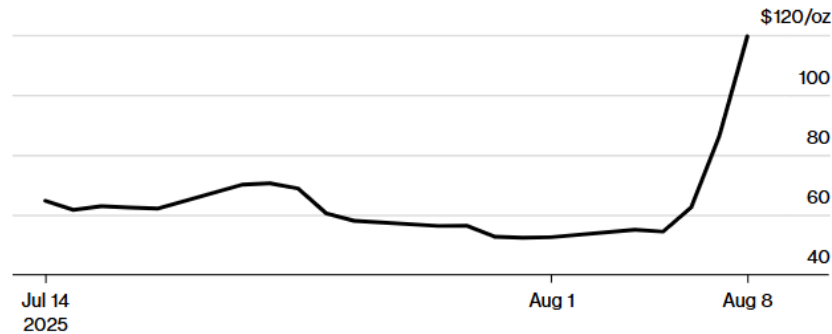
Bloomberg: Gold Hit By Surprise US Tariffs, Unleashing New Turmoil 금에 미 관세 적용으로 금 시장 혼란

- 미 관세 및 국경보호국은 1kg과 1백 온스의 금괴가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이 같은 방침은 스위스와 홍콩, 런던 등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금 수출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금값이 미국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
- 일부에서는 금이 투자자산으로 관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관세 및 국경보호국의 실수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Gold Futures Spike in New York

Fears over tariffs on bullion imports drive US premiums higher

✓ Spread between most active Comex contract and London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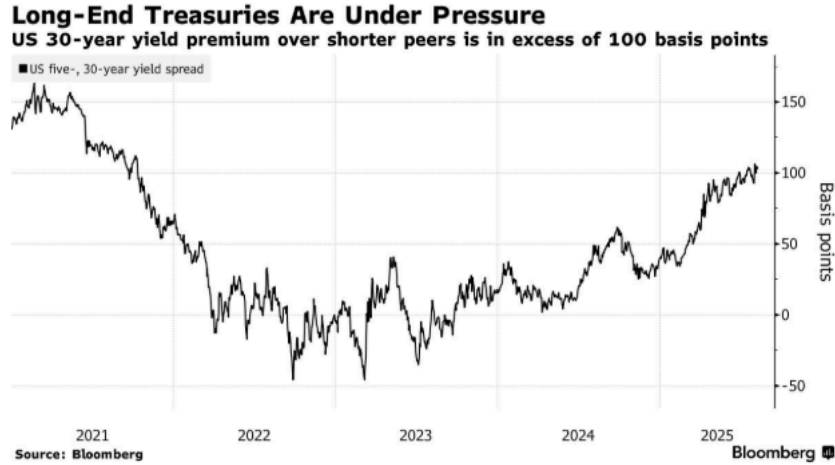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Bloomberg: JPMorgan Says Treasury Curve Can Steepen on Miran Fed Pick

JP모건, “국채 수익률 곡선 가팔라질 수 있어”

- JP모건은 트럼프의 이번 연준 이사 선임이 성공을 거둘 경우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이 4년 사이 가장 크게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팔라지는 것은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른다는 의미.
- 트럼프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 Stephen Miran을 연준 이사로 선택한 이후 어제 수요일 국채 5년물과 30년물간의 스프레드가 커졌다. 물론 이번 지명은 연방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 이에 앞서 연준 현재 이사인 Christopher Waller가 내년 파월 의장의 책임자로 유약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JP모건 측은 Miran은 트럼프의 무역 및 규정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JP모건 측은 이 같은 임명이 연준 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물류]**WSJ: Maersk Raises Guidance on Resilient Demand Outside North America****해운사 Maersk, “북미 외 견조한 수요로 실적 상향 조정”**

- 글로벌 해운사인 Maersk는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 외 견조한 수요로 인해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올해 2분기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는 3%에서 5%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미주 수입 감소를 그 외 지역의 성장이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은 1백31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EBITDA는 7.2%, EBIT는 8.2%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를 넘었다.

WSJ 기사

[무역전쟁]**NYT: Japan Says Trump to Correct ‘Extremely Regrettable’ Error in Tariff Order****일본, “미국이 관세 합의 실수 바로 잡기로 했다”... 15% 관세**

- 어제 일본의 대미 수석 무역 협상가는 어제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양국의 무역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측이 ‘아주 유감스러운 실수’를 고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 양국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은 미국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미국산 제품의 일본 개방을 대가로 모든 일본산 미국 수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 지난 7월 31일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유사한 합의 내용에 서명했다.
- 그러나 일본에는 미국이 기존 관세에 15%의 관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즉, 쇠고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 25.4%에서 15%를 더한 41.4% 관세가 붙는다는 것.
- 이에 따라 일본 수석 협상가인 Ryosei Akazawa는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가 실수를 바로잡기로 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실수는 관세가 수일 후 부과되기 전에 급하게 문서화 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NYT 기사

Bloomberg: China Defends Buying Russian Oil After Trump's Tariff Threat

중국,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오일 구매 입장

- 중국은 중국의 러시아산 오일 수입이 합법적이라고 말하면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산 오일 구매 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연방재무장관은 “오일 관세 부과가 양국 논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의 올해 7월 러시아 오일 수입은 1백억 달러까지 상승했는데;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7.7%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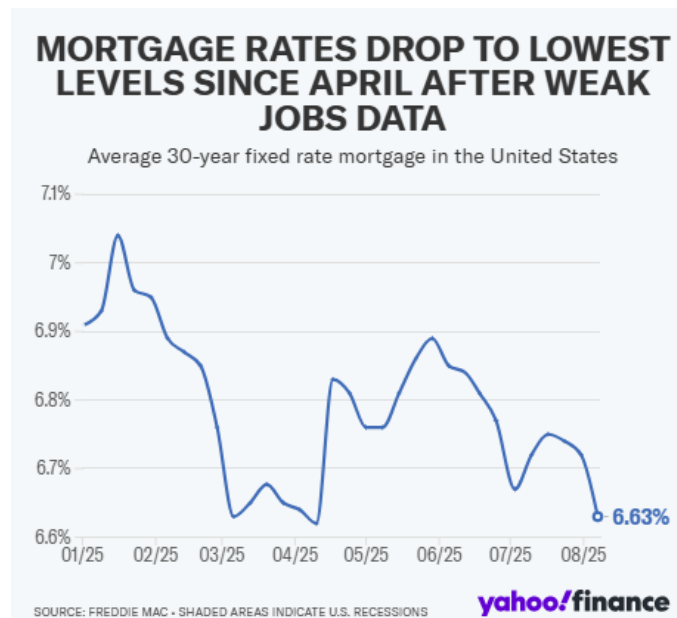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주택]

YahooFinance: Mortgage rates dip near 2025 lows after weak jobs data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치 근접...고용 지표 약세로

- 7월 고용 보고서가 지난달 대비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짐에 따라,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락했다.
-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주 6.72%에서 9bp 하락해 6.63%로, 1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주 5.85%에서 5.75%로 하락했다.
- Freddie Mac 이코노미스트 Sam Khater은 “금리가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의 구매력을 높인다”고 전했다.
- 이러한 하락세에 힘입어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거래가 소폭 증가하였다. 주택 구매 신청 건수는 2%, 재융자 신청 건수는 5% 증가했다.



YahooFinance 기사

[오일]

Bloomberg: Oil Awaits Trump's Next Moves on Russia as Prices Stem Lo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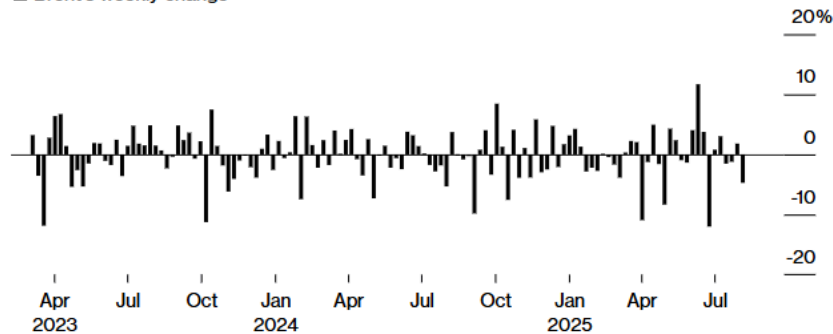
유가 안정세 회복...트레이더들, 트럼프의 러시아 대응에 주목

-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후 안정세를 회복했다. 트레이더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응책을 기다리고 있다.
- 브렌트유는 6개월 연속 하락하며 배럴당 66달러를 웃돌았다. 유가는 3개월간의 상승세 이후 8월에 급락했는데, 이는 올해 말 공급 과잉 가능성의 대비책이다.
- 이러한 하락세는 무역 관세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 및 에너지 수요 감소, 그리고 미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Oil Is Set For Weekly Slump With Russian Supplies in Focus

Prices headed for biggest weekly drop since June

■ Brent's weekly change



Source: ICE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K-Pop Looks to China to Supercharge Growth After Strong Earnings

K팝, 강한 실적 발표 후 중국 시장으로 성장 가속화 기대

- K팝 산업이 강력한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장에 대폭 가속화될 수 있다.
- BTS 소속사 하이브(Hybe)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여 약 5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영업 이익이 29% 급증했다.
- 소녀시대,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상품 판매가 분기 최고치를 기록하여 매출이 19% 증가했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도 내년에 10억 달러 규모의 IPO를 통해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려는 것으로 보인다.
-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K팝 금지령이 완전히 해제되면 한국 엔터 기업들이 수년간 성장 주기를 맞이하고,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Wendy's Cuts Sales Guidance as US Consumers Tighten Belts

웬디스, 매출 전망 하향 조정...미 소비자 지출 감소에

- 웬디스가 분기별 감소세를 기록한 후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전 세계 전체 매출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 감소 예상치와는 대조된다.
- 이는 미국 경제 악화에 직면한 고객들을 끌어오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레스토랑 체인점의 메뉴가 가격 대비 가치가 적당한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웬디스의 임시 CEO Ken Cook은 고객 경험과 마케팅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할 것이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진출을 위해 치킨 라인업 강화 및 음료 출시에 주력할 계획이라 전했다.
- 그는 1달러 음료와 같은 할인 행사가 예상만큼 매출을 늘리지 못했다고 밝히며, 프로모션 횟수는 줄일 것이라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Companies are monitoring and enforcing office attendance at the highest rate in 5 years

기업들, 사무실 출근 늘어난다...5년 만에 최고치

-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및 하이브리드 업무로 전환되었던 2020년 이후,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 부동산 체인 CBRE가 조사한 184개 기업 중 4분의 3가량이 출근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다. 출근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의 비율은 올해 69%로 급증했고, 출근 의무화 정책 시행 기업의 비율은 37%로 증가했다.
- 경제와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일부 기업은 사무실 규모 유지 및 확장 등 장기적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장기 임대 계약을 맺는 기업도 늘고 있다.
- 기업들은 "사무실 공간은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협업에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CNBC 기사

[보고서]

美, WTO 체제 종식 선언..."트럼프 라운드로 새 무역질서 구축" USTR 대표,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 둔 "턴베리 체제" 선언 "무역 합의 이행 여부 감시해 불이행시 더 높은 관세 재부과"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7일(현지시간)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로 규정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